

중소기업 에너지진단 본격 가동

전북도, 다소비 중기 에너지 사용 효율 진단 에너지절약형 시설자금 장기저리융자금지원 알선

전북도는 15일 도내 에너지다소비 중소기업의 합리적인 에너지 이용방안 제시 및 에너지이용 효율 향상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에너지진단·개선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에너지 해의 의존도가 96%인 우리나라는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비중이 높은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어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에너지 절감 활동이 필수적이며, 또한 기후 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축이라는 Post-202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했다.

이에 산업체를 비롯한 에너지 소비 분야에 있어서 연료 및 전력부문의 에너지 절감에 의한 CO2 감축 대책이 필요하며, 특히 대기업과 달리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대비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에너지전문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 전북지역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 4월말 참여기업 모집공고를 거쳐 지난 5월25일 심의회의에서 8개 업체를 선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2조에 따른 에너지진단전문기관 중 전북지역 경제 활성화 및 현장 밀착형 사후관리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도내 소재 에너지



“당선증을 드립니다” 전주시 완산구 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한국전문회전당 4층 회의실에서 6·13 지방선거 당선자에 대한 당선증 교부식을 개최하고 김승수 전주시장이 당선증을 받고 있다.

진단 전문기관을 통하여 진단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에너지진단사업의 주요내용은 에너지진단 전문기관에서 해당기업의 현장을 방문해 에너지소비비가 높은 보일러·열수송설비·공기압축기·펌프·조명설비에 대한 에너지효율을 진단하고, 에너지절감 개선방안을 도출해 시설을 개선토록 비용의 일부를 한국에너지공단 심의회의를 거쳐 지원하게 된다. 전북도는 이와 별도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시행중인 에너지절감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에너지 절약형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소모되는 자금의 일부를 장기저리의 융자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안내하여 자금 확보에 어려운 기업에게 도움을 줄 예정이다. 이번 사업에 지원을 받게 되는 기업은 2017년 에너지사용량이 2,000tce 미만의 중소기업체중 전라북도에 사업 등록된 기업으로, 익산시 등 5개 시군 소재 총 8개 기업이며, 무료 에너지 진단과 에너지 절약시설비용 지원을 통하여 에너지비용 절감에

의한 생산원가가 절감으로 기업경쟁력 향상이 기대된다. 전북도 성중을 산업진흥과장은 “에너지 진단 사업장 현지 점검을 통해 현장 업무진행 실태점검 및 진단 결과 도출된 개선방안을 공유하고, 해당 중소기업에서 맞춤 진단 개선안을 실행할 수 있게 절약시설개선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에너지 절감효과 성과를 달성하여 기업의 에너지 경쟁력 확보에 도움을 주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내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모집

도, 29일까지 영농정착지역 관할 시군에 신청 현역 34개월·보충역은 26개월 동안 농업 종사

전북도는 15일 영농현장에 젊고 유능한 인력유입을 유도하여 농촌 인력난 해소 및 농업의 미래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해 29일까지 2019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은 현역 입영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 중 영농정착의 욕이 농업인에게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신청자격은 후계농업경영인이거나 2019년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을 희망하는 자중 징병검사를 이미 받았거나 금년도 징병검사 대상자로서, 교육기관 재학생이나 휴학생은 신청할 수 없으나 2019년 졸업예정인 경우 또는 야간학교,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을 수하고 있는 자는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희망자는 영농정착지역 또는 정착예정지역의 주소지 관할 시군 농정부서(또는 농업기술센터)에 6월 29일까지신청서를 작성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산업기능요원 신청서, 영농사업계획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평가점수 반영에 필요한 학력증명서, 학교장 추천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영농 교육훈련 증명서, 영농기반 증명서류 등이다. 2019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으로 선정된 자는 농가경영주로 등록하고 현역 34개월, 보충역 26개월 동안 자신의 영농 사업장에서 농업에 종사하게 된다. /김진성 기자

“여름철 무더위 쉼터 불편사항 바로 신고하세요”

행안부, 신고제 운영

행안부(행안부)는 지난 15일 전국 무더위쉼터의 이용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불편사항 신고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누구나 무더위쉼터를 이용하다 냉방기 고장, 안내포지판 미 부착, 개방시간 미 준수 등 불편함을 느낄 경우 전화나 안전신문고 앱 또는 누리집을 통해 신고하면 신속하게 불편사항을 해결할 수 있다. 행안부는 매년 반복되는 무더위쉼터의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날

시·도 폭염 담당자와 지역자율방재단이 참여하는 민·관 간담회를 열었다.

앞서 행안부는 무더위쉼터 이용객의 편의와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올해 냉방비 예산을 167억원으로 편성했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대응정책관은 “본격적인 폭염에 대비해 무더위쉼터의 불편사항 해소, 홍보 강화와 폭염 예방 시설 정비 등 생활 밀착형 폭염 대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국민들도 평소 폭염 행동요령 등을 숙지하고 무더위쉼터의 불편사항을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

靑 “위장형카메라 수입 판매업 등록제 추진”

청와대는 불법촬영 범죄를 줄이기 위해 위장형·변형 카메라의 제조·수입·판매에 등록제를 도입하고 구매자 인적사항과 판매량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엄규숙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소실라이브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불법촬영 범죄의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국민청원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철성 경찰청장과 정영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달 21일 ‘불법범죄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국민청원에 한 차례 답변한 바 있다.

당시 정 장관은 14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한 것을 소개하면서 변형카메라 수입·판매업 등록제 도입, 불법영상물 신속 차단과 유통통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 장관은 위장·변형카메라의 유통을 추적하는 방안을 거론하면서 자동차·의료·드론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어 불법촬영만을 분리해서 규제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토로한 바 있다. 이날 엄규숙 비서관의 답변은 정 장관이 밝혔던 내용을 재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엄 비서관은 “위장형·변형 카메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 부처 합동으로 진행한 연구가 지난달 마무리됐다”며 “법정부 차원 대책을 꾸준히 추진하는 동시에 국회에 계류 중인 위장형 카메라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가족부·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경찰청 등 5개 부처가 공동으로 불법촬영 범죄 근절을 위해 단호하고 신속한 대응을 약속했다”며 “정부는 불법촬영과 성차별로 고통받는 여성들의 공포와 분노에 깊이 공감하고 가능한 모든 수단과 자원을 동원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뉴스

진안군 6급 공무원

간통혐의 의혹 감봉 1월

진안군은 지난 15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A오 팀장(6급)을 ‘공직자 품위유지 위해’, 공직자 처인 성실의무 위해, 등을 들어 감봉 1월의 징계 처분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A오 팀장은 수년전부터 B오씨와 불륜관계 의혹으로 인해 B오씨의 남편 C오씨로부터 순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근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가정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2000만원을 원고 C오씨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해 A오 팀장은 “불륜의혹에 대해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며 “상급법원에 항소하겠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박물관, 25일 어린이 문화재 그리기 잔치

국립전주박물관은 ‘제28회 어린이 문화재 그리기 잔치’를 오는 25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전주박물관 전시실에서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북지역 소재 초등학교 어린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이날까지 참가 신청을 받는다.

참가 신청은 단체 및 개별 접수로 이뤄진다. 단체 접수는 전주박물관 누리집

(jonju.museum.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에 한해 소속 학교 담당 교사를 통해 받는다.

개별 접수는 전주박물관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해당 기간 안에 신청하면 되고, 행사 당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현장접수도 가능하다. /송효철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완주군 공고 제2018-851호

완주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도로) 결정(변경)(안) 열람공고(정정)

완주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규정에 따라 입안하고, 같은 법 제28조,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도지이용규계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정정 열람공고 합니다. (정정 공고 사유: 완주군 공고 제2018-816호(2018. 6. 8.) 내용 중 오기 정정)

2018년 6월 18일 완 주 군 수

1. 완주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군계획시설: 체육시설, 도로) 결정(변경)조서 및 사유서 가.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조서

구분	면적 (㎡)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822,224,494	-	822,224,494	100.00	
도시지역	150,497,709	-	150,497,709	18.30	
관리지역	133,532,953	중) 29,011	133,561,964	16.24	
보전관리지역	45,080,182	-	45,080,182	5.48	
생산업관리지역	29,903,414	-	29,903,414	3.64	
계획관리지역	58,549,257	중) 29,011	58,578,268	7.12	
농림지역	492,016,832	감) 29,011	491,987,821	59.84	
자연환경보전지역	46,177,000	-	46,177,000	5.62	

나. 군계획시설(체육시설) 변경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7	체육 시설	화산생활 체육시설	화산면 화월리 일원	33,298	중)337,486	70,784	완주군고시 제2010-71호 (2010.6.11)	

※ 화산 소로 2-7호선 및 소로 3-7호선과 중복 결정 다. 군계획시설(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모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 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구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2	7	9	국지 도로	123	화월리 465-1	화월리 478-1	일반 도로	-	
신설	소로	3	7	6	국지 도로	164	화월리 478-1	화월리 502-1	일반 도로	-	

※ 체육시설 7과 중복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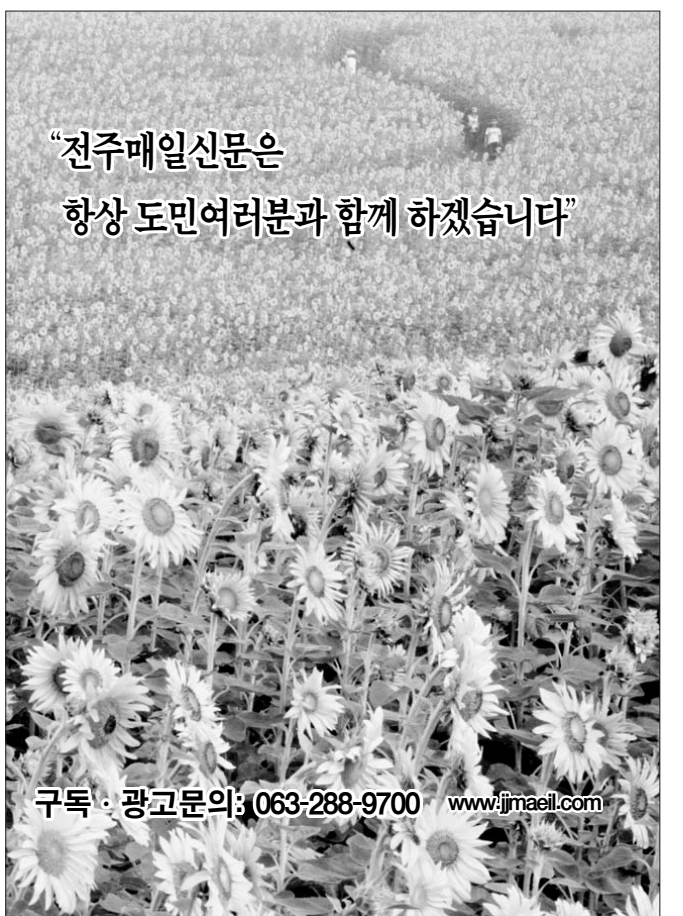
라. 결정(변경)사유서: 화산생활체육시설 확장 및 승마체험시설 조성을 위한 용도지역 및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2. 열람(의견제출)기간: 신문게재 다음날로부터 14일간

3. 열람(의견제출)장소: 완주군청 도시개발과, 산림축산과, 화산면사무소

4. 관계도서(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포함): 실용생태(열람장소에 비치)

5. 의견제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청 도시개발과(☎063-290-28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